



사순 제2주일(3월 16일)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루카 9,28ㄴ-36)



주님의 거룩한 변모

안젤리코는 주님의 거룩한 변모와 골고타 언덕 사건이라는 두 신비를 결합하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루카 9,29)”인 순간을, 볼 수 있는 몸의 자세인 십자가와 함께 묘사했다. 이렇게 하여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루카 9,35)”라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성자께서 사람이 되신 이 육화 신비의 모든 역사의 확증으로써 성취되었음을 표현했다. 주님의 거룩한 변모의 빛은 그분의 부활을 앞서 밝혀준다. 결국, 이 변모의 빛 덕택으로 우리는 고통을 받으시는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고, 영광스럽게 되시는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할 수 있다.

작가 베아토 안젤리코 | 1440-1442년, 프레스코화, 181 x 152cm, 산마르코 미술관, 이탈리아.

시작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116번 “주 예수 바라보라”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살피주소서.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 한 분이 루카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그때에 28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다. 29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였다. 30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31 영광에 싸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 32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도 보았다. 33 그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34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 구름이 일더니 그들을 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은 그만 겁이 났다. 35 이어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36 이러한 소리가 울린 뒤에는 예수님만 보였다. 제자들은 침묵을 지켜, 자기들이 본 것을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 진행자 |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진행자 | : 3분 동안 침묵하며 말씀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마주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동안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마음에 새기고 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었습니까?

한걸음 더 나아가기

| 진행자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부활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세상을 구원하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마주한 제자들은 오히려 당황스럽고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이런 제자들을 위해 구름 속에서 성령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목소리는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서 들려왔던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그때와는 다르게 지금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서 살아갈 것을 더 강조합니다.

사순의 시간은 예수님의 죽음과 영광스러운 부활로 가는 여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이하기엔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름 속에서 들려온 성령의 목소리에 따라 다시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해야 합니다. 더욱 예수님의 참된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써보기

[루카 9장 34-35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 구름이 일더니 그들을 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은 그만 겁이 났다. 이어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함께하기

| 진행자 | : 우리 소공동체가 희년을 살아가며 실천할 사항들을 정해 봅시다.

◀ **봉사의 생활** ▶ 3월 8-9일 자원 봉사 활동 분야의 희년 일정에 따라

공동체와 함께

- ① 모든 자원 봉사자들을 위하여 미사 봉헌하기
- ② 우리 지역 내 사회활동·자원봉사 단체를 알아보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

내 삶 속에서

- ① 교회 밖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원 봉사자들을 위해서도 화살기도 바치기

마침기도

| 진행자 |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116번 “주 예수 바라보라”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